

# “드라마, 우리빼고 안될 Girl” 가창력 아닌 연기력 대결



그룹 소녀시대, 카라, 미쓰에이, AOA, 시크릿, 티아라가 맞대결을 펼친다. 당대 최고 걸그룹들의 경쟁이니 흥미진진하다.

하지만 무대가 바뀌었다. 그룹 단위로 음악 프로그램 순위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다수 드라마의 주연을 맡아 연기력 대결을 펼치는 모양새다.

◇ 걸그룹 없이는 드라마도 없다?

“드라마 공화국”이라 불리는 한국 방송계에서는 매주 20여 편의 드라마가 방송된다. 그 중 아이돌 출신 배우, 소위 ‘연기불(연기+아이돌)’이 출연하지 않는 드라마는 찾기 어렵다. 특히 유명 걸그룹 출신 여배우들은 주연 배우 자리를 쫓아가며

## 현재 방영 드라마 25편 중 9편 걸그룹 출신 여배우 주연 쾰차 일일극 빼면 비중 더 높아...정려원·황정음 등 연기력 탄탄

여), 시크릿 한신화(MBC ‘20세기 소녀’), 티아라 류하영(KBS2 ‘미드워’), 씨스타 다송(SBS ‘언니는 살아있다’) 등이 각 방송사 주요 작품의 주연공을 맡고 있다.

중장편을 주 시청 타깃으로 삼는 아침드라마와 일일드라마를 제외하면 걸그룹 출신 배우들의 비중은 더욱 커진다.

◇ 연기력 논란은 옛말?

그동안 연기들이 득세하는 세대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많았다. 인기를 앞세워 전문적 연기 교육을 받은 신인 여배우들의 자리를 뺏는다는 지적이었다. 즉, 배우=연기인데 연기의 기초를 다지 않은 이들이 너무 큰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편견은 조금씩 걷히는 추세다. 1세대 연기돌인 황정음은 ‘2015 MBC 연기대상’ 때 걸그룹 출신 최초로 대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고, 결국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현재 방송 중인 KBS 2TV ‘바

녀의 법정’의 주인공을 연기하는 정려원 역시 걸그룹 샤크라 출신이지만 현재는 탄탄한 연기력으로 주목받는 여전한 배우다.

요즘은 배우 데뷔를 준비하다가 걸그룹으로 먼저 주목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얼마 전 MBC ‘왕은 사립한다’를 마친 윤아는 소녀시대 데뷔보다 배우 활동이 빨랐다. 게다가 각 멤버들은 연습생 시절부터 보컬, 댄스 트레이닝 외에 연기 수업도 함께 받았다. 그룹 활동의 인기를 등에 업고 큰 역할을 맡지만, 훈련 없이 연기에 임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다.

김영성 SBS 드라마본부장은 “요즘 대중은 평가가 정확하고 냉정하다. 연기력이 부족한데 큰 역할을 맡으면 반감을 살 수 있기에 제작진도 신중히 캐스팅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각 소속사에서도 연기를 시키기 전 철저히 트레이닝을 시키는 편”이라고 말했다.

◇ 결국 경제 논리를 따른다?

요즘 16~20부작 미니시리즈 한편을 제작하려면 100억 원 안팎이 필요하다.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외 수출이 필수다. 이를 위해 몸값 높은 한류스타를 쓸 수밖에 없다.

제작사는 상대적으로 팬덤이 큰 남자 배우의 비중이 높은 드라마를 제작하며 큰 돈을 지불한다. 결국 제작사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출연분량 욕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위 ‘가성비(가격 대비 효과)’가 높은 걸그룹 출신 여배우를 선호한다.

또한 한류 팬덤을 확보한 걸그룹 멤버가 투입되면 회당 수출액이 2만~3만 달러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인지도가 높을수록 제작지원과 제품간접광고(PPL)를 확보하기도 쉽다.

한 중견 외주제작사 대표는 “한류 걸그룹을 쫓는 해외 팬덤이 크기 때문에 그들을 섭외하는 것만으로도 해외 판매가 촉진되는 동시에 신규 드라마를 해외에 알리는 홍보 효과를 누린다”고 설명했다.

## “같은 나이 · 다른 인생”... ‘외사친’, 이색 여정이 가져다준 힐링

같은 나이지만 나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동갑내기 친구들을 만났다. 그것도 외국에서 말이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난 출연진들은 그곳에서 만난 친구와 서로의 인생을 공유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와 재미를 모두 선사했다.

지난 15일 첫 방송된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나의 외사친’에서는 배우 오연수와 개그맨 이수근 삼부자가 외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먼저 오연수는 동갑내기 여자 친구인 조반나를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 아말피코로 떠났다. 그는 여행을 떠나기 전 “한국 친구를 사귀기도 쉽지 않은 나인데, 미쳤으나 보자. 내가 혼자 어딜 가기로 했더니 라며 낯선 곳으로의 여정에 걱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오연수는 ‘원조 책잡고 여신’으로 불리는 만큼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뽐내며 새롭게 만난 친구의 마음에 사로잡혔다. 오연수를 만난 조반나의 가족은 ‘제클린 케네디와 닮았다’고 칭찬하며 그녀를 더욱 알아가고 싶어



낯선 곳으로, 그것도 두 아들까지 데리고 떠난 이수근에게는 부담감이 더욱 클 듯했다. 그러나 역시 ‘태세 예능인’ 이수

근은 낯선 타국에서도 특유의 재치 넘치는 입담을 펼치며 프로그램에 재미를 더했다.

무엇보다 이수근의 두 아들과 부탄의 새로운 외국인 친구의 순수한 우정은 절로 호뭇한 미소를 짓게 했다.

최근 방송계에서는 ‘여행’을 소재로 내건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나의 외사친’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새로운 친구 사귀기’라는 이색적인 포맷을 더해 신선함을 드러냈다.

훈훈한 첫 만남을 선사시킨 이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들로 추억을 쌓아갈지 본격적인 여정에 기대가 더 해진다.

## 워너원, 11월 13일 컴백 확정... 두번째 신드롬 예고



그들 워너원이 오는 11월 13일로 컴백일을 확정 지었다. 워너원은 18일 오후 1시 1분, 공식 SNS를 통해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11월 13일 새 앨범 발매를 예고했다.

공개된 티저영상은 첫번째 앨범(1x1=)의 티퍼가 갑자기 리와

인드 되며, 강렬한 퍼플의 두번째 앨범(1-1=0) 티퍼로 바뀌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는 새로운 앨범 “1-1=0(Nothing without you)” 이 데뷔 앨범의 프리뷰임을 나타낸다.

뒤이어 어둠속, 얼굴의 일부분에 한 줄기 빛이 비추진 열 한명 멤버의 모습이 차례로 등장, 걸립되었던 과거의 모습을 형상화하며, 새로운 앨범에 대한 공감을 자극했다.

특히, 영상의 말미에는 발매일(11월 13일)과, ‘너의 숨결 하나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아’ 라는 새로운 곡의 노랫말이 공개되며 강렬한 여운을 남겼다.

청량미 가득한 남자다움을 표현했던 데뷔앨범과 달리 이번 티저에서 한층 깊어진 워너원 멤버들의 눈빛과 서정적인 음원 한 소절의 공개로 새로운 컨셉의 두 번째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워너원은 지난 8월 데뷔 이래, 음악방송 15관왕, 신인그룹으로서 이례적인 음반 판매량 및 최고의 브랜드평판 기록 등 독보적인 그룹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이제 본격적인 컴백 준비에 돌입했다.

## 박진영X헤이즈, 레전드 · 대세 뭉친 이별공감송 ‘후회해’



레전드와 대세의 만남이다. 가수 박진영과 헤이즈가 가을에 어울리는 이별 공감송을 발표했다.

16일 정오에는 박진영과 헤이즈의 듀엣 발라드 ‘후회해’ 음원이 공개됐다.

‘후회해’는 지난해 4월 댄스곡 ‘살아있네’ 후 박진영이 1년 6개월

여만에 발표한 신곡이다.

두 사람은 박진영이 진행한 SBS ‘박진영의 파티피플’ 진행자와 게스트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당시 헤이즈와의 녹화에 대해 박진영은 “‘어쩔 저렇게 온 진심을 다해 노래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음 날까지도 계속 생각이 나 노래 하나를 보냈다고 함께 작업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특히 박진영의 듀엣 발라드는 앞서도 큰 사랑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신곡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별과

나운권의 ‘한부’, 본인이 선애와 호흡을 맞춘 ‘내애에 한 이별’, 개인과 함께한 ‘다른 사람 품에 안겨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헤이즈 역시 최근 ‘널 너무 모르고’나 ‘신용채와 함께 한 비도 오고 그래서’로 ‘음원권’ 수식어를 얻었다. 레전드 아티스트와 대세 아티스트의 만남은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받고 듣는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바다.

그 기대에 충족할 만큼 서정적인 듀엣 발라드가 탄생했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떠난 길 후회하는 여자가, 보낸 길 후회하는 남자의 이야기가 가슴에 담겼다. 두 사람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조화롭게 어우러져 이별 후 후회해 본 이들의 공감을 살 것으로 보인다.

##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음력 8월 28일)

- ▶ **황소** 36년생 양보의 미덕으로 48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 60년생 문서 계약운이 있다. 72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 한다. 84년생 꿈을 접지마라.
- ▶ **사슴** 37년생 외출을 삼가라. 49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 61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3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 85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 **황해마** 38년생 만사가 해결된다. 50년생 산행을 삼가라. 6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74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 86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 ▶ **해마** 39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 51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 63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 75년생 기다림을 알아라. 87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 ▶ **황새** 40년생 혼란스러워도 점차 맑아진다. 52년생 금전 거래에 주의하라. 6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 76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88년생 호도하는 마음을 잊지마라.
- ▶ **황새** 41년생 가지가 집 주위를 맴돈다. 53년생 금전 거래에 주의하라. 65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 77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 89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을 이룬다.
- ▶ **황새** 42년생 욕심을 버려라. 54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 66년생 뜻밖의 재물이 있다. 78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 90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 ▶ **황새** 43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 55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 67년생 이사에 신중하라. 79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 91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 **황새** 32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44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 56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 68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 80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 ▶ **황새** 33년생 출입을 삼가라. 4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 57년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집착은 삼가라. 69년생 내 자신을 알고 맘을 고요히 하라. 81년생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
- ▶ **황새** 34년생 마음을 고요히 하라. 46년생 뜻밖의 재물이 있다. 58년생 자신의 영역이 커짐을 느낀다. 70년생 낯말은 새가 듣고 방망이를 쥐가 듣는다. 82년생 정성을 다하면 수확은 분명 있다.
- ▶ **황새** 35년생 미련을 버려라. 47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 59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 71년생 무리수는 금물이 다. 83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

★ 해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